PREMIUM REPORT 제32호
(2017. 2. 28)

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역량분석 및 선단형 진출방안

KICI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

작 성 자 : 김효실 표준융합연구실장(수석연구위원)
내용문의 : T - (031) 231-3440 / E - hskim@kici.re.kr

1 연 왕 : 내수시장

○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규모는 최근까지 점진적 성장세였으나 정체 국면으로 진입

○ **'15년에 최초로 정보통신공사업 국내 시장규모가 감소하였음**

☞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생긴 1971년 이후 공사업 실적이 46년만에 첫 감소

구 분	2013	2014	2015
전체 매출액(억원)	129,584	136,117 →	134,766
신고 업체수(개)	7,278	7,664	8,062
업체당 평균실적 (억원)	17.8	17.8	16.7

▶ **정보통신공사업 총 시장규모가 첫 감소하고, 업체당 평균실적도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,**

▶ **정체된 정보통신공사업 내수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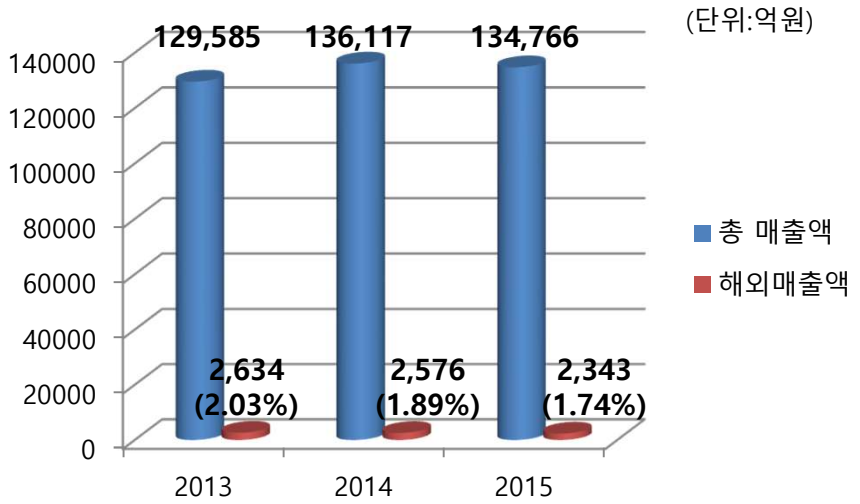
1 연 왕 : 해외수주실적

○ 해외 수주실적은 국내 시장규모 대비 2% 수준 이내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

○ **최근 3년간 해외진출 실적과 해외매출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**

(단위:억원)

구 분	2013	2014	2015
국내 공사실적	129,585	136,117	134,766
해외 수주실적	2,634	2,576	2,343
해외 수주비율(%)	2.03	1.89	1.74



▶ **최근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,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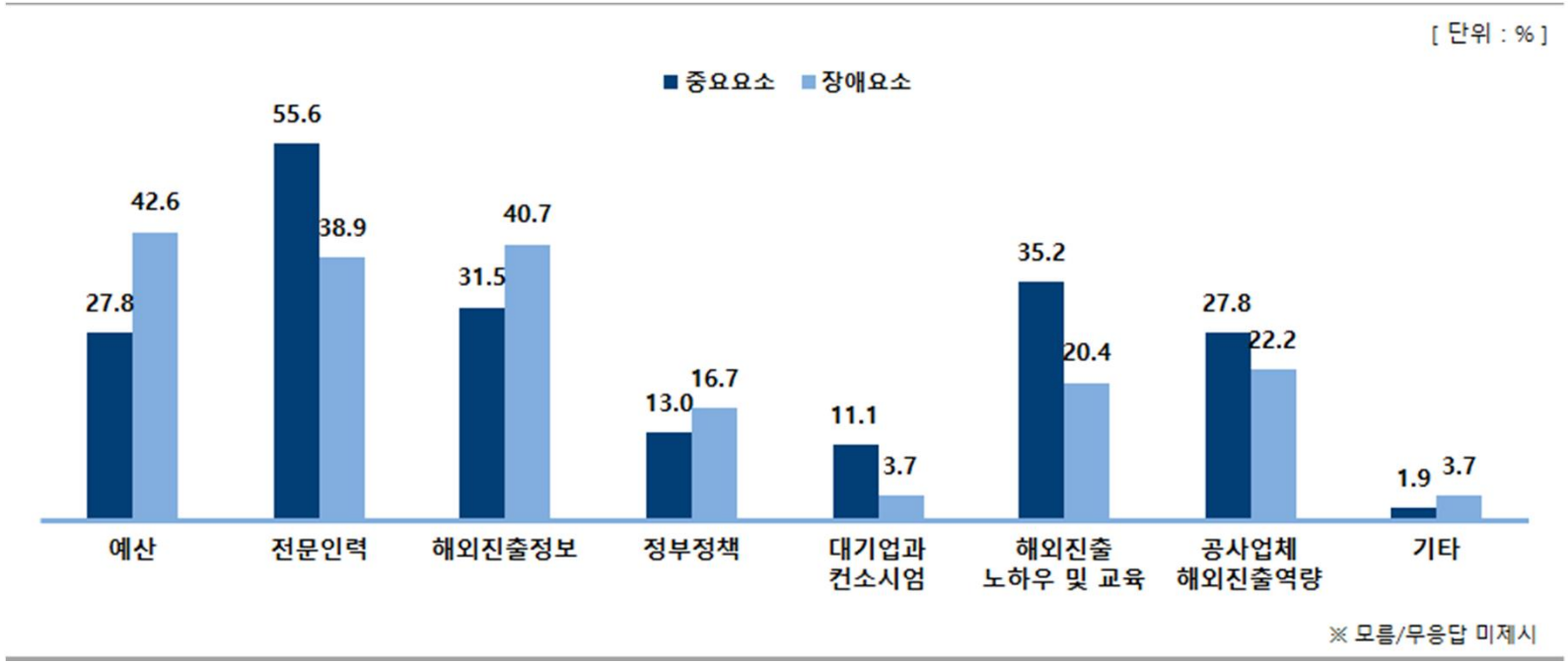
▶ **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경쟁력을 토대로하여**

▶ **정보통신공사업분야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해야 함**

2 해외진출시 중요·장애 요소 분석

○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결과,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시 중요요소로는 전문인력(55.6%), 해외진출 노하우 및 교육(35.2%), 공사업체 해외진출역량(27.8%) 등의 순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음

○ 반면, 해외진출 시 장애요소로는 예산부족(42.6%)과 해외진출정보(40.7%)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 부분이 해외진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파악됨



3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역량수준 진단(1)

○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역량진단을 위하여 SWOT분석기법을 활용해 분석하면,
○ 강점(Strength) 요인으로서 **정보통신공사업 시공역량, 유무선통신 인프라 구축역량, 공사업 엔지니어링 역량 등 9개 요인**이 도출되었으며
○ 약점(Weakness) 요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 **해외진출 노하우, 중소기업위주의 산업구조, 해외 네트워크 역량 등 9개 요인**이 도출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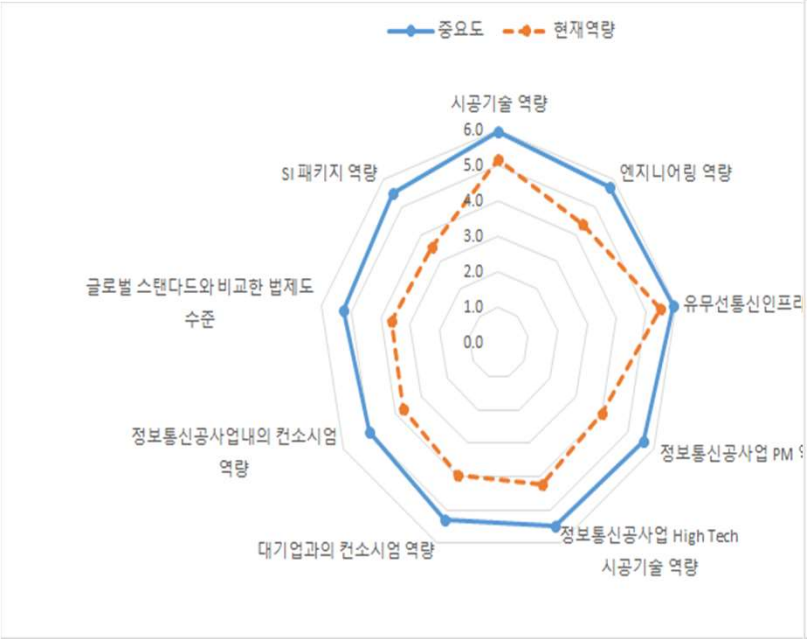
내부 요인	
강점(Strength)	약점(Weakness)
① 정보통신공사업 시공 역량	①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노하우 부족
②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 역량	② 중소기업위주의 공사업 산업구조
③ 유무선통신인프라 구축 기술 역량	③ 해외 네트워크 역량 부족
④ PM(Project Management) 역량	④ 해외프로젝트 발주/입찰정보 부족
⑤ High Tech 시공기술역량	⑤ 해외 정보통신공사업 프로젝트개발 역량 부족
⑥ 대기업과(통신사/건설사/SI기업+공사업체) 컨소시엄 역량	⑥ 정보통신공사업 해외 프로젝트 협상・계약・제안서 전문가 부족
⑦ 공사업내 컨소시엄(중견공사업체+중소공사업체)역량	⑦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현지문화 이해도
⑧ 글로벌 스탠다드대비 법제도 수준	⑧ 정부 해외진출 프로젝트와 연계성 측면
⑨ SI(장비+시공+솔루션) 패키지 역량	⑨ 하도급위주의 해외프로젝트 참여

3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역량수준 진단(2)

○ 강점(Strength) 분야에서는 **유무선통신 인프라 구축역량, 시공기술역량의** 갭(Gap)이 가장 적어서(0.4~0.8) **현재 이 분야의 역량수준이 특히 높다고 인식**하고 있음

○ 약점(Weakness) 분야에서는 **전문인력양성, 해외진출 노하우, 해외 네트워크 역량 요소** 갭(Gap)이 가장 큰 것으로 인식하여 **현재 이 분야의 역량수준이 특히 낮다고 인식**하고 있음

강점분야



약점분야

3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역량수준 진단(3)

○ **기회요인**으로는 **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구축기술, 우리나라 ICT위상 및 인식, 한류 이미지, 정부 및 ICT기업들의 해외진출 노력** 등 7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,
○ **위협요인**으로는 **해외공사업 시장에 외국기업 진입 가속화, 상대국의 정책변화, 상대국 생산성대비 높은 인건비, 자국산업 보호정책** 등 6개 요인이 도출되었음

외부 요인	
기회(Opportunities)	위협(Threats)
①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구축 기술 ② 우리나라의 ICT 위상 및 인식 수준 ③ 한류 컨텐츠 및 한류 문화 이미지 ④ 정부 차원의 ICT산업분야 해외진출 확대 정책 ⑤ 중견 정보통신공사업체 중심의 해외진출 확대 노력 ⑥ 대기업(통신사/건설사/SI기업)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노력 ⑦ 정부/공사업계분야 공사업 해외진출 확대 공감대 형성	① 해외공사업시장에 외국기업(중국,베트남 등) 진입 가속화 - 하이테크는 선진국과 경쟁, N/W인프라는 중국 등 과 경쟁 ② 개발도상국 등 상대국의 정권 · 정책 및 환경 변화 ③ 공사업 국내시장규모 대비 해외진출 시장규모 비중의 정체 ④ 상대국 생산성 대비 높은 인건비 ⑤ 공사업체 주도적인 해외프로젝트 참여 경험 부족 ⑥ 자국산업 보호정책 확대에 따른 국내 공사인력 참여기회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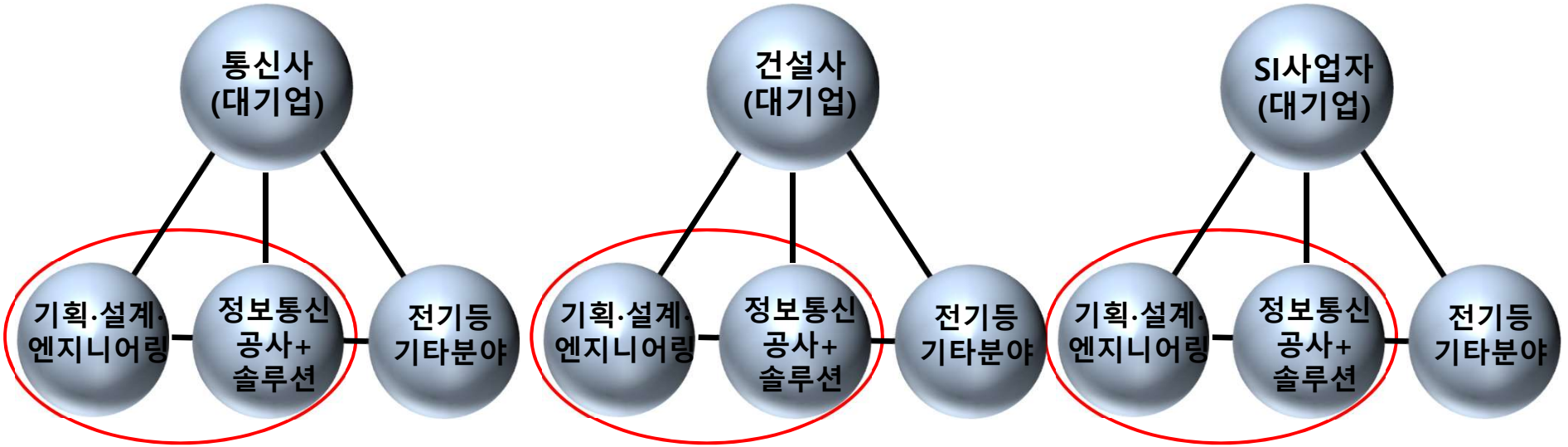
4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중장기 방향

○ 해외진출 중장기 방향으로는 1단계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마스터플랜 수립과 중견기업 위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,
○ 2·3단계에서는 선단형 추진전략을 본격화하고, 국가별 시장분석,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입기반을 중소기업과 전세계로 확장

구 분	추진 계획	비 고
1단계 ('16~'17)	· 공사업 해외진출 마스터플랜 수립 · 선단형 및 상생형 프로젝트 방안 수립 · 정부지원 프로그램연계 및 수주지원	중견기업중심 해외진출
2단계 ('18~'19)	· 해외진출 국가 및 지역의 확대 · 선단형 및 상생형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· 해외진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확대	중소기업으로 확대
3단계 ('20~'21)	· 전세계 대상의 공사업 진출 · 선단형 및 상생형 프로젝트 체계 성숙단계 · 공사업 시장의 해외진출중심으로 전환	공사업시장의 전세계 확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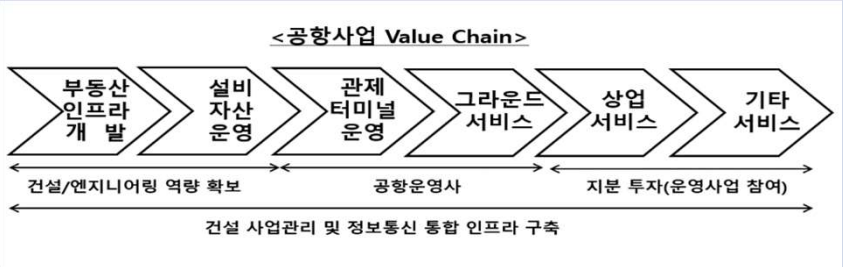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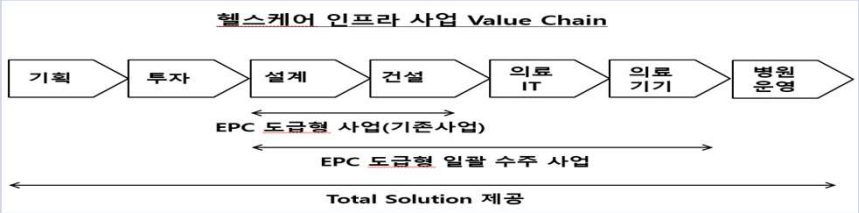
5 선단형 해외 진출 방안(1)

○ (컨소시엄 유형) 정보통신공사업 **선단형 해외진출은 대기업 유형별(통신사,건설사,SI사업자,무역상사 등)로 대기업 중심으로 정보통신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진출하는 모형**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시장규모 확대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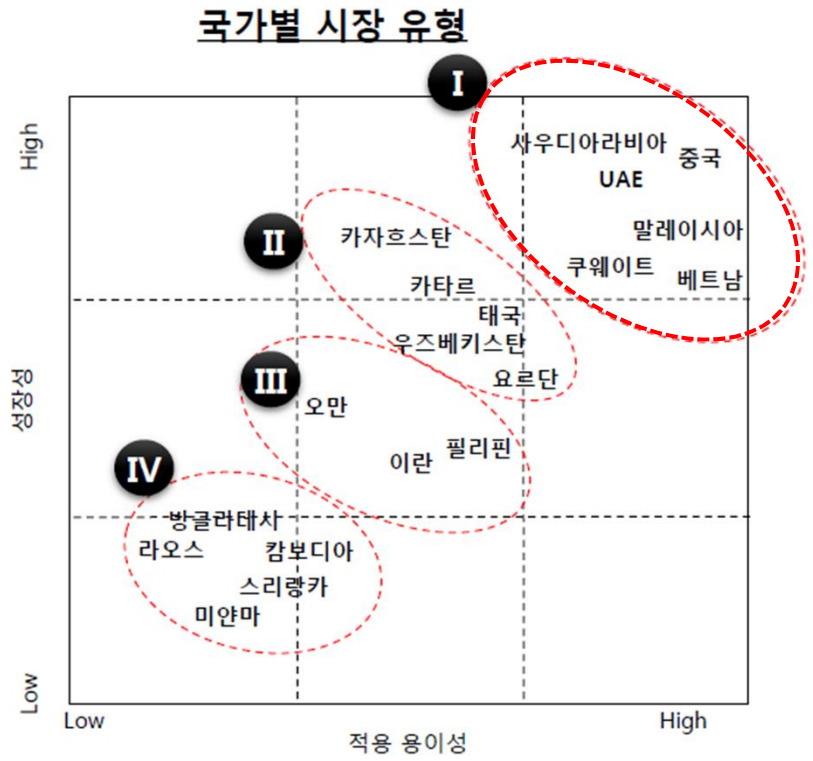
5 선단형 해외 진출 방안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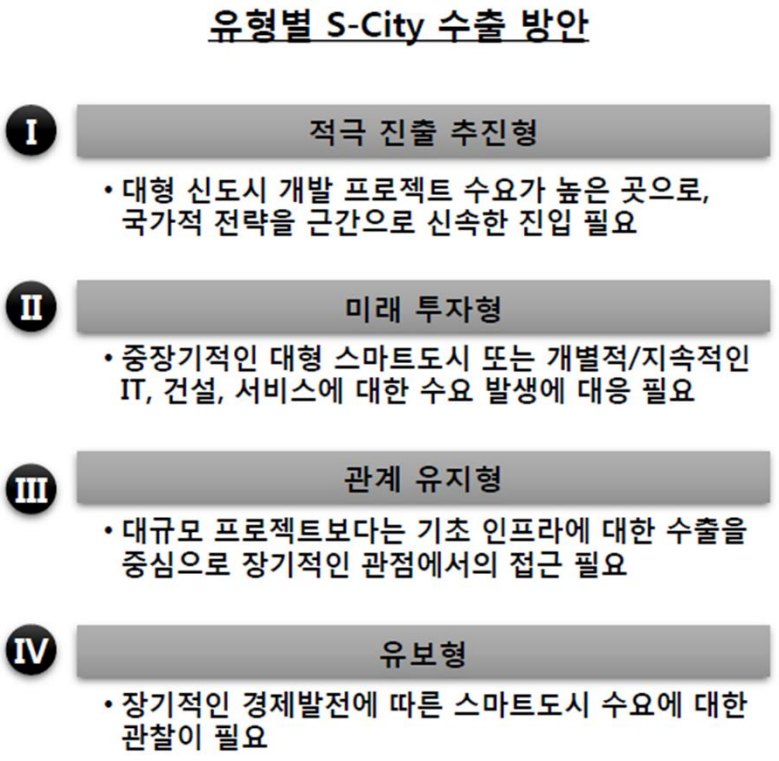
○ (사업유형) 대표적인 정보통신공사업 **선단형 해외진출 모델은 융·복합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임**

구 분	융·복합 프로젝트(대표 사례)
① 공항 복합 인프라	공항사업을 중심축으로 전 밸류체인에 걸쳐서 다양한 복합개발 및 운영사업 
② 스마트 인프라 (M2M)	IT+통신서비스 결합을 통해 플랫폼기반의 기기간(M2M)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 인프라(빌딩 및 운영관리 포함)
③ 헬쓰케어 인프라 복합사업	의료서비스관련 인프라시설을 투자/건설하여 의료기기-IT시스템-의료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사업 

5 선단형 해외 진출 방안(3)

○ (사업유형) 또 다른 정보통신공사업 **선단형 해외진출 모델중의 하나는 해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통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**





자료: 위성복(2016),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

6 선단형 해외 진출을 위한 제언

○ 선단형 해외진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**'정보통신공사업 선단형 해외진출 체계'**를 구성하여 대기업·금융권·공사업체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

▶ 미래창조과학부 주도하에서 정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'정보통신공사업 선단형 해외진출 지원체계'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

- 미래창조과학부, 국토교통부, 산업통상자원부, 대기업(건설사, 통신사, SI사업자, 종합무역상사), 수출입은행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, 정보통신공제조합,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등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

▶ 해외진출체계내 대중소기업이 연계된 '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지원센터'를 운영

- 공사업 산업분야관련 대기업-정보통신공사 중견·중소업체-기타분야 업체 등을 구성하고 이끌 수 있는 지원체계 운영이 필요함
- 정보통신공사업 선단형 해외진출 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지원센터를 마련

※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존 '해외진출센터'기능이 있는 기관 등과 연계·협력 추진

▶ 선단형 지원체계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'Think Tank'역할을 하면서, 국가적인 차원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메가 프로젝트 발굴을 주도하는 역할도 수행